

호주제 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

더 나은 가족제도가 기다리고 있다

호 주 제 폐 지 및 대 안 심 포 지 엄

호주제 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 더 나은 가족제도가 기다리고 있다

때: 2003년 6월 5일(목) 오후 2:00~4:30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층 강당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프로그램

사회 조미경 교수 아주대 법학부

국민의례

격려사 지은희 장관 여성부

기조강연 곽배희 소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안발표 김상용 교수 부산대
정현수 강사 동국대

의견발표 김정숙 의원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민주당
오세훈 의원 한나라당

질의·응답

기/조/강/연

차 례

기조강연 ⑦ 호주제 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 곽배희

대안발표 ②① 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 - 가족별 편제방안 김상용

②⑦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정현수

의견발표 ④① 호주제 폐지 및 대안 김정숙

④⑤ 새로운 신분등록제 도입, 행정부가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 이미경

부록 ⑤① 2003년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⑦⑦ 호주제 폐지 운동 연혁

< 질 문 지 >

심포지엄의 주제발표 또는 토론 내용에 질문이 나 의견이 있으시면
이 용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참고자료

‘2003년 호주제국민의식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남녀의 성비에 가중치를 넣고 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령과 지역을 고려하여 9593명을 임의추출하였다 자료의 분석과정에서는 남녀의 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중치를 두어 분석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표본의 최대한계허용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pm 1.0\%$ 였다

성에 가중치를 두고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66.2%가 호주제는 폐지해야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호주제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33.8%로 나타났다 남녀로 구분하여 볼 때 호주제의 폐지에 대해 여성의 82.3%가 찬성한 반면 남성은 50.1%였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는 남 66.7%, 여 91.0%, 20대는 남 62.1% 여 88.4%, 30대는 남 66.9% 여 91.6%, 40대는 남 51.9% 여 83.7%, 50대는 남 30.6% 여 69.3%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는 남 19.6%, 여 55.4%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은 남성들일수록 호주제 폐지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자료 분석은 국내여론조사전문기관인 OZ마케팅의 자문을 받은 것임)

위 조사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와 전국 30개 지부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역, 신촌, 여의도, 광화문, 을지로, 시청앞, 대학가 등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을 직접 나가 설문지를 배포하고 실시한 것이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30일 까지 본부와 전국 30개 지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1,049명(남 628 여 421명)중 호주제 폐지 찬성 의견이 71.8%(753명), 존속의견이 28.2%(296명)로 나타난 바 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폐지 의견이 61.0%(383명), 존속 39.0%(245명)이었고, 여성은 폐지 의견이 87.9%(370명), 존속이 12.1%(51명)이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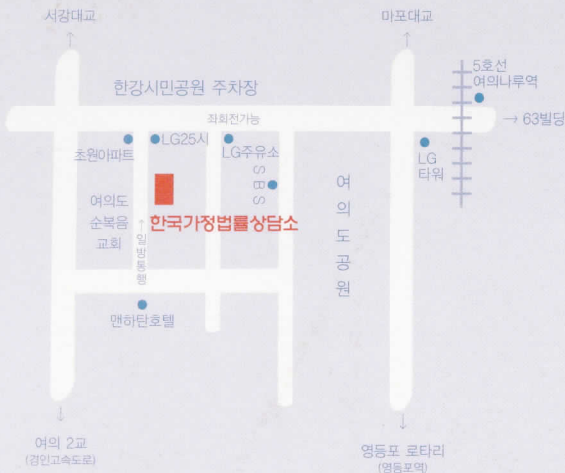
날: 2003년 6월 5일(목) 오후 2:00~4:30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층 강당

주최: 여성부

주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 권리옹호를 위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의도 법소포'

여의도 법소포



교통편

지하철 :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하차(도보로 10분거리)

일반버스 : 3, 30, 145, 9, 119, 326, 133-2

좌석버스 : 72-1, 1002

연락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780-5688, 5689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여성부와 의 공동협력사업으로 가족법 상 양성평등 부부평등의 근원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해 함께 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03. 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 배 희

순서

격려사 : 지은희 장관 여성부

사 회 : 조미경 교수 아주대 법학부

기조강연 : 곽배희 소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안발표 : 김상용 교수 부산대 기본가족별 편제 방안

정현수 강사 동국대 개인별 편제 방안

의견발표 : 김정숙 의원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민주당

오세훈 의원 한나라당